

(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요한계시록 1:4, 8, 19. 요한은 과거에 있었던 일,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기록하라는 명을 받았다. (5~10분)

유의 사항: 이 가르침을 위한 제언은 요한계시록 1~22장의 가르침을 위한 제언(248쪽)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한다.

학생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물건들을 보여준다. 일지, 오래된 사진, 출생증명서 또는 역사책과 같은 물건들을 가지고 과거를 나타낼 수 있다. 현재 유효한 운전 면허증, 신문, 또는 달력으로 현재를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씨앗, 결혼 청첩장, 축복사의 축복, 또는 선교사 지원서를 가지고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반원들에게 그 물건들이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중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면서 반원들과 함께 물건들을 하나 하나 살펴본다.

칠판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적는다. 한 학생에게 교리와 성약 93편 24절을 읽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그 구절이 왜 진리에 대한 훌륭한 정의인가?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 것의 이점에 대해 토론한다.

• **요한계시록 1장 4, 8절을 읽는다.** 이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그분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다. 그분은 처음이자 나중이신 분이다.)

•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한 가지 대답은 예수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으며, 현재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지하고 계시며, 영광 중에 지상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다.)

• **19절을 읽는다.** 요한이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에 대해 기록해야 하는 것이 왜 적절한가?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이며 나중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계시록은 이러한 시대 구분에 따라 각 시대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첨부 도표에서 각 시간 구분에 대한 성구를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현재 아래에 열거된 사건들이 요한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며, 미래 아래에 열거된 많은 사건들은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거나 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계시록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요한계시록 1:4~20.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간증이다. (20~25분)

신문이나 잡지에서 오려낸 회사 로고나 상징을 수업에 가져온다. 학생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개 선정한다. 그것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알아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우리는 자주 보거나 사용하는 상징을 알아본다는 것을 설명한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 또한 상징적인 언어로 대화를 나누었다. 요한의 시현은 비유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비유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의 "요한의 상징적 언어에 대한 말", 457쪽 참조)

칠판에 숫자 7을 크게 그린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우리는 7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한 주일에 들어있는 날 수, 지구의 존재 기간 구분) 히브리 문화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성 또는 완전을 나타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의미가 일주일의 날 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 그것이 창조의 기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 그것이 지구의 역사 기간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7이라는 숫자가 계시록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칠판의 숫자 7 둘레에 무작위로 다음의 단어들을 적는다. 교회, 영, 별, 촛대, 인, 사자(천사), 나팔, 대접, 머리. 이 모든 형상이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요한의 시현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음 활동 하나 또는 둘 모두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 마분지를 사용해 "영", 왕관, 그리스 문자인 알파와 오메가, 촛대, 별, 검, 열쇠 모양을 만든다. 그 물건들을 학생들에게 건네주고 그들에게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상징들을 찾아본 후 각주 또는 경전 안내서를 활용해 그 의미를 알아보게 한다. 모두 찾으면, 그들이 알게 된 것을 반원들에게 이야기하게 한다.
- 도표를 유인물로 만들되, 해석 칸은 "공백"으로 남겨둔다. 학생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눈다. 학생들에게 경전에서 그 상징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 표시를 하고, 상호 참조하여 유인물의 해석 칸을 채우게 한다. 다 채우게 되면, 반 전체가 유인물을 살펴본다.

다음 말씀을 읽음으로써 끝맺는다.

"상징은 시간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언어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 가운데서 그의 복음을 가르치고 아들에 대해 증거하기 위해 택하신 언어이다. 상징은 경전의 언어이며, 계시의 언어이며, 영의 언어이며, 신앙의 언어이다. 상징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공통된 언어이다."(조셉 필딩 맥콩키, 복음에서의 상징[1985년], 1쪽)

학생들에게 계시록을 단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볼 수" 있도록 격려한다.(요한 계시록에서의 상징의 사용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의 "교회의 승리에 대한 요한의 증거", 449~452쪽 참조)

요한계시록 1:4~20.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간증이다. (10~15분)

수업 전에 칠판에 역사적인 인물(예를 들면 용맹스러운 알렉산더 대왕, 정직한 에이브러햄 링컨)의 이름과 호칭을 적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호칭은 우리에게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을 알려 주는가? 칠판에 구주의 그림을 놓는다. 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 1장 4~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 및 표현을 찾아보도록 한다.(충성된 증인"[5절],"알파와 오메가"[8절], "인자"[13절],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18절]가 가능한 대답에 포함된다.) 학생들이 찾은 호칭을 그림 옆의 칠판에 적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이러한 호칭이 구주의 사명에 대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계시록은 사탄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증언이라고 간증한다. 학생들이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서 이 증언이 참되다는 증거를 찾아보도록 격려한다. (유의 사항: 여기서 학생 교재의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활동 "가"의 활용을 고려한다.)